

# 회원사 소식

## 한국타이어



###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조원 매출의 탑' 수상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연 매출 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12개 지역 업체들에게 수여하는 '매출의 탑' 트로피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1조621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1조원 매출의 탑'을 수상한 대전공장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대전공장 이호건 공장장은 "타이어 제조 단일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공장은 매출 1조 원 달성에 머물지 않고 2008년 역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매출 1조원 달성의 원동력은 바로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도 힘쓸 것임을 다짐하였다.

### ● 한국타이어 H-LOHAS 일환으로

#### Happy 2008 캠페인 실시

한국타이어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건강사회,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H-LOHAS"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함께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타이어 해피2008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행사 기간 내 고객이 한국타이어 프리미엄 타이어를 구매하면 개당 1,000 원의 적립금이 적립되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고객들에게는 사랑의 열매 배지가 증정된다. 이 방식

은 타이어 판매 수량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회사의 기부금을 합하는 이른바 '매칭 기프트 프로그램(Matching Gift Program)' 방식으로, 총 5,000만원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본부장 허기열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H-LOHAS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 한국타이어 Driving Emotion 3차 광고 캠페인 런칭

매번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목을 끌여왔던 한국타이어의 Driving Emotion 광고 캠페인이 2008년 3월 그 세 번째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 동안 한국타이어는 기업 슬로건이기도 한 'Driving Emotion'이 단순히 제품의 우수성이 아닌 타이어로 인해 운전자에게 느끼게 되는 감성적 편의임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새롭게 시작되는 3차 캠페인 역시 드라이빙과 운전자의 교감을 중시하기 위해 '발의 스킨쉽'이라는 테마를 담았다. 이 '발'이라는 모티브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오펜토, 벤투스, 다이아프로 각각의 제품 특성을 모델 김민준, 정려원을 통해 표현했다. 또한 모델과 함께 드라이빙의 생생함을 전해 주는데 큰 몫을 차지한 것은 광고 촬영지로 결정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름다움이었다. 발끝을 타고 오는 한국타이어의 Driving Emotion. 때론 소리 없이 부드럽게, 때론 발끝으로 아찔하게 또 때론 온몸으로 짜릿하게 전해지는 운전자의 이모션은 타이어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이번 광고를 통해 느껴보길 바란다.

### ● 한국타이어 제1회 Proactive Award 개최

한국타이어는 지난 12월 28일 2007년 동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회 Proactive Award> 시상식을 개최했다. Proactive Award란 한국타이어의 비전과 연계된 가치와 행동양식을 실천하는 사원을 찾아 포상하는 한국타이어 최고의 상으로써 그 보상과 특전을 전사 최고의 대우로 하여 큰 이슈를 낳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산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Leadership, Performance, Challenge, Innovation 각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루어졌다.

Leadership 어워드는 열린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임원 및 팀장 부문에서 1명, 주임 및 반장 부문에서 1명씩 각각 1,500만 원이 수여되었다. Performance 어워드는 업무성과가 뛰어나고 회사 기여도가 높은 개인 또는 팀에 수여되는 상으로, 한국타이어 대구지점이 단체 수상하여 상금 1,500만 원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다. Challenge 어워드는 진취적인 사고와 높은 도전정신으로 회사에 귀한 자산을 창출시킨 사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인사고과 5점 가점의 혜택이 주어진다. Innovations 어워드는 혁신활동을 수행한 혁신조직을 선발하는 상으로, 수상 팀에게는 각각 1등 200만원, 2등 150만원, 3등 1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2007년 처음 개최



한 Proactive Award는 매년 최고의 성과를 일궈낸 사원들에게 큰 공로를 표하는 한국타이어의 큰 축제로 자리잡아,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한국타이어 제26회 동경 오토살롱에 6회째 참가

한국타이어가 지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경 니폰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진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및 튜닝 박람회인 제26회 동경 오토살롱에 6회째 참가했다. '운전자 의 기분과 감성까지 이해하고 움직여 주는 타이어'라는 드라이빙 이모션의 컨셉 아래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용자들의 순수한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를 위해 전시 부스를 친환경 제품(Eco Zone), 럭셔리 고급제품(Luxury High-end), 모터스포츠 제품(Motor Sports) 등으로 나누어 한국타이어의 다양한 제품 및 혁신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이번 전시제품은 실리카 소재를 이용해 연비절감 효과를 이룬 친환경 제품을 기본으로 하였다. 탁월한 승차감과 최고 성능으로 고급차량에 장착되는 Ventus S1 evo와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Ventus V12 evo는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모터스포츠 제품에서는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경기인 일본 Super GT, 독일 뉘버그링 24시, 미주ALMS(America Le Mans Series)에서 성능을 검증 받은 Ventus F200 타이어를, 실제 일본 Super GT에 출전하고 있는 Hankook NSC Porsche팀 차량과 함께 전시하였다.

브랜드담당 김세현 상무는 "이번 전시회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타이어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첨단 기술력을 장착한 친환경 타이어인 Ventus V12 evo는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한국타이어의 기업정신(H-LOHAS)을 잘 나타낸 제품으로 향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한국타이어복지재단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가져

지난 12월 14일, 대전시청과 금산군청에서 한국타이어복지재단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대전시와 금산군에 각 5천만 원씩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된 이번 성금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2월 21일 금산군청을 찾아 임직원 2천여 명이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금산 복지뱅크 등이 주관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전달하였다. 이 성금은 독거노인, 장애인 생계비, 저소득층 주거비, 빈곤가정 집수리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17일에는 금산군 제원면사무소를 찾아 겨울방학 동안 결식하는 학생들을 위해 7백만 원을 기탁했다. 제원면에서는 이 성금으로 70명의 결식아동을 선정해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금산공장은 여름방학에도 같은 방법으로 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억 4천만 원을 전달해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금호타이어** KUMHO

● 금호타이어, 미국에 생산기지 구축

지난 1월 29일 금호타이어는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현지에서 타이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는 29일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과 소니 퍼듀(Sony Perdue) 조지아주 주지사, 켄 스튜어트(Ken Stewart) 조지아주 상무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조지아(Georgia)주에서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비브 카운티(Bibb County)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자동차 생산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조지아주의 메이컨-비브 카운티 내의 약 50만 평방 미터 부지에 자동화 생산 공장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200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1단계로 약 1억6천 5백만 달러이며, 연 210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미국 공장은 초고성능(UHP)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가 적용되고,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장치용(OE) 제품뿐 만 아니라 미 전역의 교체용(RE) 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타이어 시장으로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생산 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수출에 따르는 물류비 절감과 동시에 중국, 베트남에 이은 현지 생산 기지 구축으로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9년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생산능력을 포함하여 약 7,700만 개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2015년 세계 5위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보고 있다.

● 금호타이어

다임러사와 크라이슬러사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는 다임러사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다목적 차량인 메르세데스 - 벤츠 비아노(Viano) 모델과 크라이슬러사의 SUV용 차량인 닷지(Dodge) 저너(Journey)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임러사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특별 시판될 다목적 밴 차종인 VIANO X-Clusive 모델에 약

10,000개 전량 한정 공급하며, 향후 전략적 공급업체로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245/45R18 KU19 제품은 승차감을 높이고 소음을 최소화한 UHP(초고성능) 타이어로 고속에서의 주행 성능이 탁월하다.

시속 36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주행 전용 타이어인 x-speed로도 개발되어 있는 제품이다. 또한 고속에서의 빗길 주행에 탁월하며 타이어가 지향하는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접지면의 좌우측 형상을 다르게 디자인한 IN-OUT 타이어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는 해외로 지난 2007년에 Benz 'A-Class' 모델에도 공급되고 있으며, 고급 모델에 제품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임러사와 협의 중에 있다.

한편, 크라이슬러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총 4개 규격의 KH16으로 27L과 3.5L 모델에 7, 19인치가 공급된다. 본 제품은 승차감을 높이고 소음을 최소화한 UHP(초고성능) 타이어로 고속에서의 주행 성능이 탁월하다. 북미 내수 및 유럽 지역 수출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지난 2007년 푸랑크푸르트 모터쇼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장착되어 전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세브링' 모델에도 KH11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고급 모델에 제품 공급을 위해 크라이슬러와 함께 제품 연구개발 중에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해외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사와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제품에 적용하여 고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급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엄격한 절차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에 대해 검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RE(교체용) 시장에서의 매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① 금호타이어, BASA 체결로 항공 산업 역사 새로 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 한-미간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통해 민간 항공기 타이어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이 날 싱가포르 미대사관에서는 정상호 항공안전본부장과 Bobby Sturgel 미연방항공청(FAA)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금호타이어 등 항공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간 항공안전협정(BASA) 서명식을 거행했다.

BASA란 민간항공부품을 수출입에 있어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 등을 통한 미국과의 상호 협정으로 협약 체결이 안 된 경우, 기술적 우위에 있거나 성능이 입증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2005년 3월 BASA시범 사업체로 선정이 되어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인증을 획득, 국내 항공기 부품 수출의 필수조건인 BASA체결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 활로를 찾게 되었다.

현재 BASA체결국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30여 개국이며, 추가적으로 체결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항기용 타이어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많은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시장에서도 5개 내외의 업체만이 상품화에 성공하였을 정도로 시장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타이어와는 달리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품목으로서 현재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항공기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1,340억불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국내 항공부품산업체 중 유일하게 독자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국내 항공부품산업 최초로 TSO(Technical Standard Order) 인증 획득을 통해 국내외 항공사에 민항기 타이어 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향후 그룹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에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015년에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M/S 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넥센타이어



### ● 넥센타이어 주주총회, 9년 연속 가장 빠른 개최 기록

넥센타이어는 지난 2월 12일 경남 양산시 유산동 본사에서 제 50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2000년부터 9년 연속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가운데 최초 주주총회 개최의 진기록을 이어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넥센타이어는 지난 한해 5,679억원의 매출실적으로 전년보다 19.1% 증가해 관련 업체 중 최고의 상승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3.3% 급증한 621억원을 기록했으며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도 165% 늘어난 485억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 호전은 지난해 원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의 확대와 해외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그리고 초고성능타이어(UHPT)를 비롯한 고수익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판매확대 등의 Product Mix 구조개선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7년 연속 현금배당 9%(보통주 기준)라는 높은 배당을 실시해온 넥센타이어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액면가액 5,000원 기준 보통주 450원(9%), 우선주 500원(10%)의 배당을 결의했다. 홍종만 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수출시장의 호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와 중국시장에서의 성장을 통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4억불 수출탑 수상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11월 30일 "북미와 유럽지역 등의 폭발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어 회사설립 이후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해 산업자원부로부터 4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1995년 1억불 탑을 수상한 이후 10년만

인 2005년에 2억불 탑 수상, 그리고 2006년에 3억불 탑을 수상하였고, 지난해 4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매년 1억불씩 증가하는 폭발적인 실적을 거뒀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1년간 회사의 생산시설 증대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펼친 것이 주효했다"며 "특히 북미, 유럽지역 등 고부가제품의 판매 확대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넥센타이어는 해외수출 강화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가에 다양한 형태의 광고 전략을 펼쳤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인 미국 세마쇼와 독일 에센쇼, 이탈리아 볼로니아쇼, 중국 상해 전시회에 참가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으며, 그 결과 놀라운 수출실적 향상을 기록했다.



### ● 넥센타이어 2008년 시무식 -

#### 2010 비전 달성을 위한 도약의 해

넥센타이어는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목표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홍종만 부회장은 "올해 더 큰 성장과 결실을 얻기를 기대한다"며, "2010 비전 달성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10년 중장기 계획과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전사교육을 지난 12월 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2010년까지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 달성 ▲중국 공장 정상화 ▲대기업 문화

구축의 세 가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서별로 실행해야 할 계획과 목표를 공유했으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전달했다.

#### ● 넥센타이어, 유럽 드리프트 공식 스폰서 계약 체결

넥센타이어는 지난 12월 유럽 드리프트 시리즈 선두업체인 프로드리프트(ProDrift)사의 08년도 공식 파트너로서 정식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선수들은 넥센 팀으로 구성되어 유럽에서 프로드리프트 아일랜드 시리즈와 영국, 스웨덴, 벨기에 그리고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프로드리프트 유럽 대회 등에서 경기를 치르고 각종 드리프트 행사에서 시범을 보일 예정이다. 특히 프로드리프트 넥센 팀은 넥센타이어 제품 N3000을 장착하여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지난 2007 아일랜드 챔피언인 에릭 오 설리번(Eric O'Sullivan) 선수가 N3000을 장착하고 출전하여 프로드리프트 챔피언십 6경기 중 2경기를 우승함에 따라 그 높은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넥센타이어는 스피디한 주행성능을 보장하는 UHP 타이어 N6000을 곧 출시하겠다고 밝혀 드리프트팀의 활동에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2008 스노우 레이스 개최

지난 1월 2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에서 '2008 스노우 레이스'가 개최됐다. 넥센타이어가 '동계 모터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색다른 매력의 스노우 레이스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날 참여한 국내 정상급 오프로드 랠리 선수들은 투어링카 3개 부문과 4륜차 부문 등에서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설원의 눈과 얼음이 깔린 특설 트랙에서 연출된 화려한 경기 장면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년 연속 대회를 개최한 넥센타이어는 "올해도 겨울에만 맛

볼 수 있는 색다른 스노우 레이스를 개최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화려한 볼거리가 한겨울에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모터스포츠로 자리잡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설 연휴 타이어 무상 점검 캠페인 실시

넥센타이어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5~6일 이틀간 귀성차량을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 안전 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하행선(부산방향)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A/S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타이어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캠페인 현장에서 공기압 측정과 마모상태 및 외관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타이어 점검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UHP 타이어 N7000과 아이나비 최고급 내비게이션을 경품으로 지급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보온 푸드병, 옷놀이 셋트, 테미여행 가이드북 등을 제공했다.

#### ● 2007 Reifen China Show 참가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11월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2007 Reifen China 1st Asian Essen Tire Show"에 참가해 20 시리즈 UHP 타이어, 런플랫 타이어 등 16개 패턴 20개 규격을 전시해 첨단 기술력을 과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중국 최대 규모로, 전세계 40여개 업체가 참가해 부스를 설치,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무역상담을 가졌고 일 반관람객 3만여 명이 관람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넥센타이어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20시리즈 타이어를 비롯해 UHP 전용 N시리즈 제품(N3000, 'N5000', 'N6000', 'N7000), SUV 전용제품인 Roadian MT, 'Roadian AT II, 겨울용 초고속 타이어인 Winguard Sport 등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타이어를 전시해 바이어들과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 협회 소식

## News 01 2008년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2일 오세철 회장(금호타이어 사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허기열 사장, 금호타이어 김병섭 전무, 넥센타이어 양창수 상무, 흥아손이태 부회장, 신흥 김영호 상무, 동아 심영훈 소장, 삼익 박재철 소장, (주)넥센 황경수 사장, 대한타이어공업(주) 김대원 전무 등 회원사 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 Maple Room에서 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08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 의결되었으며, 오세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원자재 가격급등과 원화강세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이어 및 튜브 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사의 노력을 치하하고, 어려움이 기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도 회원사간 상호협력력을 바탕으로 각자 모두 나름의 사업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였으며, 협회는 회원사들의 사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News 02 기후변화대응 관련 워크숍 참석

우리협회는 지난 2.1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기관,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산업계 실천 계획 추진방향, 그리고 산업계의 대응사례들이 안건으로 다루어 졌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외 회의에 참석, 동향을 주시하여 향후 이에 대한 타이어 및 튜브 산업의 대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News 03 설날 귀성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지난 2월 5일 우리협회는 시민안전협회, KBS-2 라디오와 합동으로 설날 귀성차량을 대상으로 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서비스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만남의 광장」 2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었는데, 우리협회는 타이어 공기압과 손상유무를 검사하여 공기압 조정 및 스페어타이어로의 교체와 이에 따른 운전자와의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안전협회는 택시 모범운전자들을 동원하여 차량의 서비스차량으로의 안내와 안전운전 관련 홍보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KBS 라디오 교통정보 프로그램에서의 현장인터뷰를 통하여 공기압 부적합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 및 고속도로 주행 시 타이어 관리 방법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 졌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총 156대의 승용차를 검사하여 약 26%의 차량이 공기압 부적합, 못박힘 등의 정비불량이었으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서비스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시할 계획이다.



News 04 페타이어 재활용사업 운용

페타이어 재활용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환경부의 열이용 사용량 제한범위 확대 및 물질재활용사업 활성화 유도 필요성에 따라 08년 시멘트킬른용 총 공급한도량을 전년대비 15% 감소한 14만 5천톤으로 제한 운영기로 하였다.

한편, 협회는 07.12~08.2월간 전주시, 합천군, 칠곡군 3개 지자체와 매립장차수재용으로 330톤, 페타이어 바닷 가공업체인 금강타이어(주)와 연간 2,000톤의 페타이어 공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다.